

WTO 체제하 농산물 덤핑수출 급증

농업무역정책연구원(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 IATP)에 따르면 WTO의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제정 후 10년 동안 미국의 식품기업들은 여전히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농업무역정책연구원의 새 보고서인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A Decade of Dumping-United States Dumping on Agricultural Markets’는 미국의 덤핑 수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90~03년 동안 미국에서 재배·판매한 다섯 범주의 상품(밀, 옥수수, 콩, 쌀, 면화)에 대해 입수 가능한 최신(2003년)의 수치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거하고 있다.¹⁾

농업무역정책연구원의 원장인 Mark Ritchie는 “WTO 농업협정은 농산물 덤핑문제와 이것이 세계의 농민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고, 덤핑으로 인해 낮아진 세계 곡물가격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농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농업무역정책연구원은 미국 농업부와 OECD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3년 미국의 수출이 생산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 수준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혀냈다.

1) 보고서 전문은 www.iatp.org

참조

- 밀(wheat)은 생산비용보다 평균 28%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었다.
- 콩(soybean)은 생산비용보다 평균 10%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었다.
- 옥수수(corn)는 생산비용보다 평균 10%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었다.
- 면화(cotton)는 생산비용보다 평균 47%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었다.
- 쌀(rice)은 생산 비용보다 평균 26%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었다.

현재 국제교역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왜곡 행위 중 덤핑은 가장 치명적인 행위의 하나이다. 하지만 초기 단계부터 WTO는 덤핑행위가 세계 전반의 농촌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는 커녕, 이러한 영향을 인지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농업법(Farm Bill) 개정 이후 모든 품목에 걸쳐 덤핑 수준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96, 2002년의 농업법 개정으로 주요 농산물들은 커다란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고, 과잉공급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렸다. 두 번의 농업법 개정은 모두 WTO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 결과 미국 농정에서 농산물 덤핑이 제도화되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표 1 WTO 체제 전후의 덤핑 수준

	단위: %	
	1990-1996년	1997-2003년
밀	27	37
콩	2	11.8
옥수수	6.8	19.2
면화	29.4	48.4
쌀	13.5	19.2

출처: 농업무역정책연구원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